즉시 배포용: 2016 년 8 월 2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6 년 뉴욕주 대박람회 개막을 선언하며 박람회장의 역사적인 5 천만 달러 규모의 전면적 쇄신을 경축

테이프 절단식으로 개막일을 시작하며 수십년 사이 가장 기대를 모은 박람회의 방문객을 환영

주지사, 새 정문과 확대 개편된 미드웨이, 새로운 엠파이어 RV 파크 등 새로 재설계된 박람회장의 주요 시설 순회

노동절 연휴 기간 중 Lakeview Amphitheater 에서는 무료 교향악단 연주회, 오논다가 호수에서는 무료 낚시 대회 열려
왓킨스글렌 국제경기장에서는 노동절 연휴 중 인디카 (IndyCar) 그랑프리가 다시 열리고 2018 년까지 이어질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논다가카운티(Onondaga County) 박람회장을 재건하는 전격적인 5 천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공개한 지 1 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 새로 단장한 2016 년 뉴욕주 대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의 개시를 알렸습니다. 이 박람회장의 엄청난 개량은 방문객들이 체감하는 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이 박람회가 가진, 센트럴뉴욕(Central New York) 지역 최고의 경제적 엔진으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확고히 유지할 것입니다. 새로 단장한 박람회장을 한 차례 순회한 후, 400 명 넘는 내빈들이 동석한 가운데 주지사는 테이프 절단식을 통해 행사 개막을 알리고 수십 년간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아온 이 박람회 방문객들을 환영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인디카(IndyCar) 시리즈가 올해 그랑프리 대회, 그리고 2017 년과 2018 년 대회를 통해 왓킨스글렌 국제경기장(Watkins Glen International)에 돌아온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 년 뉴욕주 박람회 티켓을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인디카 그랑프리(IndyCar Grand Prix) 입장료 5 달러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경주대회는 노동절 연휴 기간인 2016 년 9 월 1 일부터 4 일까지 개최되며, 같은 기간에 Lakeview Amphitheater 에서는 무료 심포니 콘서트가, 오논다가호(Onondaga Lake)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무료 낚시대회가 진행되어 완벽한 노동절 연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뉴욕주 대박람회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번의 전례 없는 쇄신을 통해 우리는 이 박람회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대하고 훌륭한 행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미드웨이와 완전히 재설계된 정문에서부터 엠파이어 RV 파크와 새로운 Taste New York 마켓에 이르기까지, 이 박람회는 새로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계속 추동할 전면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디카 시리즈를 왓킨스글렌 경기장에 재유치함으로써,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을 촉진하고 업스테이트 뉴욕의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 모두 이번 여름에 박람회에 들러 뉴욕주의 진면목을 체험하실 것을 권합니다."

375 에이커 부지에 자리잡은 이 박람회장은 1890 년에 처음 문을 연 이래 가장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지사가 5 천만 달러 규모의 전격적인 박람회 재설계 계획을 추진하기 전까지, 뉴욕주 박람회장은 1 세기 넘게 별다른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폭적인 재설계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지붕 및 전기 설비 수리, 상하수 주관 및 도로 수리 등 기본적인 시설 재건을 위한 투자가 전부였습니다. 녹지, 우수 및 빗물 집수 시설의 부족은 폭풍우 발생 시 심각한 홍수를 초래했습니다.

시설 개량

현재는, 1900 년에 박람회 방문객들을 맞이했던 캐리지 게이트를 연상시키는 아치를 가진 극적인 분위기의 새 정문, 더 많은 놀이 기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더 커진 15 에이커 규모의 웨이드 쇼즈 미드웨이, 그리고 지하수, 하수도 및 전기 시설이 구비된 315 대 규모의 새로운 엠파이어 RV 파크 등, 주지사의 계획안 중 여러 핵심 시설에 대폭적인 개량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박람회장 전역에서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점 및 노점은 오래된 구역에서 나와 브로드웨이라 부르는 새 대로의 양편에 마련된 새로운 판매 활동 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박람회장 전체적으로 개방 공간이 확대되었으며, 좌석과 차양, 미스팅 스테이션을 늘려 뜨겁고 건조한 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람회장의 새로 조성된 구역에는 식물과 나무를 새로 심고 에너지 효율적인 LED 조명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표지판 체계를 새롭게 통일하여 박람회장의 여러 역사적 건물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 더하여 올해 박람회에서는 수십 개의 새 놀이기구, 이벤트, 음식 판매대, 전시품 등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목록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 전시 및 활동

올해 새로 추가된 행사로서, 오논다가 호수 서안의 재생을 축하하기 위해 오논다가카운티의 Lakeview Amphitheater 에서 무료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2 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러큐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유명 교향악단 Symphoria 가 8 월 29 일과 9 월 1 일 저녁 7 시 30 분에 공연하며 박람회 보통 입장권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9 월 1 일 콘서트 후에는 불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면 개편된 Taste NY 마켓은 역사적인 원예관 건물(Horticulture Building) 안에 자리잡았습니다. 손님들은 수제 치즈와 고급 견과류에서부터 지역산 와인, 수제 맥주, 독주 등등 뉴욕의 모든 풍미를 즐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Taste NY 마켓 방문객들은 행사에 참가하는 76 개의 모든 뉴욕 매장들이 제공하는 식품과 음료 샘플을 무료로 시식해보고, 제품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보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9 월 3 일에는 환경보존부가 오논다가 공원에서 무료 낚시 행사를 엽니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낚시에 참가해서 상품도 탈 수 있습니다. 오전 8 시부터 10 시까지 Bassmaster

Elite 프로리그와 B.A.S.S. Nation 지역 낚시 프로리그 간 친선 경기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시러큐스의 오논다가카운티 공원에서 출발하여 새로 재생된 오논다가 호수에서 낚시를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가족들은 노동절 연휴에 BASS 프로 선수들과 만남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료 경품 행사
올해에는 오전 11 시부터 오후 7 시 사이 매시간마다, 뉴욕주 대박람회 평생 입장권 8 장이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무료 배포됩니다. 방문객들은 I LOVE NY Pavilion 에 들러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박람회 평생 입장권 무작위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New York Lottery 의 Yolanda Vega 가 발표합니다. 또한 박람회 입장객 선착순 5,000 명에게 티셔츠도 증정됩니다. 이 티셔츠에는 뉴욕주 대박람회 기념 이미지가 그려져 있으며, 1-4 번 게이트에서 입장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인디카 그랑프리
2016 년 9 월 1 일부터 4 일까지 올해 노동절 연휴에는 인디카 경주대회가 인디카 그랑프리를 통해 왓킨스글렌 국제경기장에 돌아옵니다. 글렌 경기장에 대한 뉴욕주의 지원은 2017 년과 2018 년 인디카의 핑거레이크스 복귀를 확고히 한 추가 2 년 계약의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I LOVE NEW YORK 캠페인을 통한 연간 10 만 달러 투자 약속은 글렌 경기장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디카 그랑프리의 홍보를 지원할 것이며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캐나다 등에 산재하는 수만 명의 자동차 경주 팬들을 핑거레이크스 지역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2016 년 뉴욕주 박람회 티켓을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인디카 그랑프리(IndyCar Grand Prix) 입장료 5 달러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레이서를 위한 필수 안전 요건에 맞춰 스피드웨이 노면 개선에 970 만 달러를 투자한 결과로, 인디카 그랑프리 외에도 글렌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주요 대회 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 사업을 통해 225 만 달러의 교부금이 트랙 개조 공사의 완료를 위해 지원되었고, 그로 인해 2010 년 이후 처음으로 인디카 그랑프리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왓킨스글렌 국제경기장은 연간 2 억 달러를 상회하는 경제 효과와 매년 83 만 명이 넘는 대회 방문객 수로 인해 핑거레이크스 지역의 중심적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디카 그랑프리 대회가 미국에서 ABC 와 NBCSN 을 통해 생중계되고 ESPN International 을 통해 다른 212 개국의 수백만 가정에 중계되면 글렌 경기장의 홍보 효과는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장의 역사적 아름다움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거의 백만 명에 이르는 박람회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와 체감 만족도를 개선할 현대적 편의시설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박람회장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지사의 비전에 힘입어, 오늘부터 박람회 방문객들은 전혀 새로운 박람회, 즉 온갖 농산물을 홍보하고 가족을 위한 멋진 오락을 선사해온 전통에 여전히 충실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또 다른 175 년간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박람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람회 디렉터 권한대행 Troy Waffn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대박람회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박람회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박람회임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지사의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으며, 방문객을 맞이할 아름다운 새 정문에서부터 더 개방적이고 안락한 미드웨이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는 영속적인 효과를 남길 것입니다. 저는 하루 빨리 박람회 방문객들이 와서 저희가 준비한 변화를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Howard Zemsky 사장, CEO 겸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열정과 지역과 주정부 차원에서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뉴욕은 지역의 기술 장인과 수제 음료 기업과 뉴욕주 대박람회의 미드웨이 놀이기구에서부터 왓킨스글렌 국제경기장에서 펼쳐질 유명한 인디카 그랑프리 경주 대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멋지고 근사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업스테이트로 향하는 지금,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당장 길을 떠나 이 지역 최고의 관광 명소 두 곳을 경험해 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왓킨스글렌 국제경기장의 Michael Printup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년 계약의 발표가 왓킨스글렌 국제경기장과 인디카의 공동 목표였습니다. 다음 주말 글렌 경기장에서 펼쳐질 그랑프리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그날의 대회를 2017 년 시즌까지 확장하기 위한 작업을 하루 빨리 시작했으면 합니다. 물론, 뉴욕주와 Cuomo 주지사의 굉장한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팬과 파트너에게 경사스러운 날이며 너무나 흥분되는 발표입니다."

인디카의 Jay Frye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왓킨스글렌 경기장은 많은 뉴욕 주민들의 가슴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레이스웨이는 매년 수천 명의 팬과 가족,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우리는 2018 년까지 글렌 경기장에 다시 돌아와 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인디카가 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능케 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 뉴욕주 대박람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모든 뉴욕 주민들과 함께 인디카 그랑프리를 축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John A. DeFrancisc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미드웨이에서부터 RV 파크와 새 정문까지, 뉴욕주 대박람회는 이제 21 세기에 걸맞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가 센트럴뉴욕의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이 지역의 자산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이러한 개선을 가능케 하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Tom O'Mara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절 연휴에 글렌 경기장에 다시 돌아올 인디카 레이싱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 2 년 더 이 레이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오늘의 뉴스는 참으로 굉장한 소식입니다. 왓킨스글렌 경기장의 레이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Cuomo 주지사와 휘하 팀에 감사드립니다. 드라이버와 팬 모두 계속해서 훌륭한 평가를 아끼지 않는, 글렌 경기장의 새로 포장된 레이스웨이에서 펼쳐질 인디카 그랑프리는 이 경기장의 최고 대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핑거레이크스와 서던티어를 비롯한 뉴욕주의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최고 명소가 될 것입니다."

Bill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박람회는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행사입니다. 이번의 전면적 쇄신으로,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방문객과 관광 수입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박람회의 재탄생은 센트럴뉴욕을 비롯한 업스테이트 전 지역 재활성화의 상징이며, 이 박람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전 지역에 걸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협력이 지속되어 미래의 발전으로 결실을 맺기를 고대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